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6.14(금) ~ 2024.6.20(목)

제공일시 2024 06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6.14(금) ~ 2024.6.20(목)

제공일시 2024 06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자연복원법' 최종 확정... 2050년까지 생태계 전체 복원 의무화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자연복원법이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이사회를 통과함 (한겨레 2024.6.18) 김정수 기자
- EU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각) "오늘 자연 복원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공식 채택했다"며 "이 규정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 EU가 국제 환경 공약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자연복원법은 EU 관보 게재 20일 뒤부터 시행됨

2. "中 HBM 생산 막아라"... 美, 동맹국 규제 확대 요구에 韓 장비업계 긴장

-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글로벌 주요 장비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에 추가 규제를 요구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2024.6.19) 최지희 기자
(헤럴드경제 2024.6.19) 김현경 기자
-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앨런 에스테베즈 차관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방문해, AI 관련 중국의 고급 메모리 제조 능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요구할 예정임
- 일본 1위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과 세계 1위 장비업체 ASML의 중국 사업에 더 많은 제한을 두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HBM 공정 필수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장비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3. 中 전기차 견제 확산... 美·EU 이어 튀르키예도 관세인상 동참

- 유럽 10대 전기차 시장인 튀르키예가 미국과 EU의 중국 전기차 견제에 동참함 (지디넷코리아 2024.6.17) 김재성 기자
-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는 자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 전기차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점을 주목하고, 현지 브랜드 강화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튀르키예 무역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4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추가 관세는 차량당 최소 7천달러(964만원)로 책정됨. 시행은 다음 달 7일임

4. 중국, 올해 전 세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소 생산한다

- 세계적인 독립 연구 및 에너지 지능 기업인 리스타드(Rystad Energy) 에너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말까지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할 것이라고 함 (가스신문 2024.6.17) 양인범 기자
- 2022년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현의 수소 목표를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하는 국가 수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생산 목표는 비교적 쉽게 달성되고 있음
- 이 계획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2.5GW를 할당하며, 2025년 말까지 연간 200,000톤(tpa)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1. 온실가스 감축 위한 CCU 메가프로젝트에 9000억 투입

- 정부가 9000억원을 투입해 이산화탄소 포집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함
- 이 프로젝트는 산학연이 협력해 연간 4000t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임
-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CCU 메가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다배출기업과 CCU제품 수요 기업을 연계해 실증함으로써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CCU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임

(파이낸셜뉴스 2024.6.18) 김만기 기자

2. 환경부, 탄소감축 목적 이자 지원 때 대기업보다 중기 우대 검토

-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금리를 지원해주는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17일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업에 지원되는 우대금리 구조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동일한데,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다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뉴스 2024.6.17) 성소의 기자

3. 과기정통부, AI 시대 네트워크발전방안 연내 수립… 안전하고 지능적인 통신망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진흥정책을 마련함. AI 시대에 맞춰 네트워크를 고도화·안정화 하며, 글로벌 AI 선도국가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목표임
-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발전방안(가칭)’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됨
- 방안은 현재 기본 구상 단계임. 기본 방향은 AI가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도화된 네트워크기술과 망을 확보하는 것임

(전자신문 2024.6.18) 박지성 기자

4. 로봇 제어도 기후변화 대응도… XaaS 선도 프로젝트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위해 올해 새로 추진하는 ‘XaaS(서비스형 산업) 선도 프로젝트’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함
-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해 산업별 최적화된 대표 디지털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조·의류·물류 등 분야별 수요기업과 SW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의 기획, 개발, 실증·확산을 지원함
- 올해는 공모를 통해 기획과제 20개(20억원)와 개발과제 5개(56억원) 등 25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총 76억원 규모로 지원함

(디지털타임스 2024.6.19) 팽동현 기자

5.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출범… 첫 토론으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 논의

-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13일 출범함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이날 발족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을 견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알림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에는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연구책임의원은 박정현·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맡음

(에너지경제 2024.6.13) 이원희 기자

1. 글로벌 에너지기업 셸, 싱가포르 LNG회사 '파빌리온 에너지' 인수

- 글로벌 석유 및 에너지 기업 셸이 싱가포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업 파빌리온 에너지를 인수를 확정 짓고 LNG 부문 경쟁력을 강화함
-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셸이 싱가포르의 글로벌 투자 회사 테마섹으로부터 파빌리온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함
- 셸은 이번 인수가 현금 자본 지출 지침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6.18) 최용석 기자

2. 호주 광산업체 리오티트, 2028년부터 세르비아 리튬 채굴

- 환경 논란에 휩싸인 호주 광산 대기업 리오티트의 세르비아 리튬 채굴이 2028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FT에 따르면,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논란이 된 리튬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EU의 새로운 보증에 따라, 이르면 리오티트가 2028년부터 리튬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함
- 부치치 대통령은 해당 광산에서 연간 5만8000톤의 리튬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유럽 내 전기 자동차 생산량의 17% 또는 110만 대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말함

(뉴스1 2024.6.17) 신기림 기자

3. 폭스바겐그룹, 벌컨그린스틸과 저탄소 철강 생산 파트너십 체결

- 폭스바겐 AG는 그린스틸 전략의 핵심 요소인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 벌컨그린스틸과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폭스바겐은 2027년부터 벌컨그린스틸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을 자사 생산 시설에 사용할 계획임
- 벌컨그린스틸은 2027년부터 오만에서 자동차 등급을 비롯한 고강도 철강을 생산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6.18) 김진영 기자

4. 바스프·CPGC, 선박 탄소 포집 시스템 상용화 위한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중국 최대 조선업체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의 전력 장비 자회사 CPGC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적용되는 첨단 선박 탄소 포집 시스템(OCCS)에 'OASE 블루(OASE blue)' 가스 처리 기술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힘
- 양사는 이번 협력을 위해 2024 상하이 국제탄소중립박람회(2024 Shanghai International Carbon Neutrality Expo)에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함
- CPGC는 해운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자사의 선박 탄소 포집 시스템에 바스프의 OASE 블루 기술을 적용할 예정임

(EBN산업경제 2024.6.17) 권영석 기자

5. 솔라엣지(SolarEdge), 산업용 태양광 에너지 최적화 소프트웨어 플랫폼 출시

- 스마트 에너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솔라엣지(SolarEdge Technologies, Inc.)가 소프트웨어 기반 에너지 솔루션인 '솔라엣지원(SolarEdge ONE)'을 출시한다고 클린테크니카가 17일(현지시각) 전함
- 이 솔루션은 상업과 산업용 태양광 애플리케이션으로서는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몇 달 내 일반 출시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4.6.19) 홍명표 기자

1. GS 이어 삼성, 美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프린스턴누에너지’ 투자 / 삼성전자, GPU 투자 결정…반도체 부문에 힘 신나

- 삼성그룹의 벤처캐피털(CVC) 삼성벤처투자가 미국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업체 프린스턴누에너지(Princeton NuEnergy)에 투자함
-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임
- 삼성전자가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두루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짐
-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진이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에서 GPU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힘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더구루 2024.6.18) 홍성환 기자
(스마트에프엔 2024.6.18) 신종모 기자

2. 현대차·기아, 세계 2위 리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리튬 생산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 칠레의 리튬 생산업체 SQM은 현대차와 기아와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함
- 또, 이번 계약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장기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옴

(아시아투데이 2024.6.18) 김정규 기자

3. LS에코에너지, 베트남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시스템 공급

-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국영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배전시스템을 납품함
-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CV가 비엠텔넷에 데이터센터용 버스덕트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힘
- 제품은 비엠텔넷이 하노이 인근 화락 하이테크 단지에 건설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보내짐
- LS에코에너지 측은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를 사용하면 전력 소모를 전선 대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함

(매일경제 2024.6.18) 정유정 기자

4. SK머티리얼즈, 日 명성과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LIB 사업 본격화

- SK머티리얼즈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탄소나노튜브(CN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듦
- SK머티리얼즈는 일본 소재 스타트업 ‘명성나노카본(메이쥬나노카본·일본명 名城ナノカーボン)’과 손을 잡으며 실리콘 음극재 성능 개선에 나섬
- 양사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이는 고결정성·고순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더구루 2024.6.13) 정예린 기자

5. 아이에스동서, 유럽內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다음달부터 가동

- 아이에스동서가 지난해 인수한 유럽 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 BTS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폴란드 오스와 공장이 다음달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감
- 이 공장은 지난 5일 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 가공 판매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취득함
-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폴란드 오스와 공장은 총 대지면적 5만m²(5ha)에 건설된 1만m²(1ha) 규모의 폐배터리 셀/모듈 전처리 전용 공장으로, 연간 최대 2만4000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함

(뉴스로드 2024.6.19) 김의철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6.14(금) ~ 2024.6.20(목)

제공일시 2024 06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정부, 3세대 이후 소형모듈원전(SMR)개발에 9억불 쓴다

- 미국 연방정부가 소형모듈원전(이하 SMR) 3세대 이후 버전(Gen III+)의 개발에 최대 9억달러(약 1조 2429억원)을 할당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지속가능성 미디어인 환경리더가 18일(현지시각) 전했다
- 원전은 사용하는 냉각제에 따라 3, 4세대를 구별함. 우리가 쓰고 있는 원전은 3세대로 물로 원자로를 냉각함. 반면, 4세대는 가스, 액체금속 등으로 냉각함. 3.5세대도 있는데, 이는 3세대보다 좀 더 안전성이 강화된 버전임. 미국 연방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SMR이 3세대 이후 버전인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임
- 이번 지원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고, 첨단 원자로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미국의 청정 에너지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 이번 지원금은 2024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4)에 따라 창설되고, 대통령의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의해 마련됨. 미국 에너지부(DOE)는 자금 지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즉, 티어(tier)1과 2로 지원 대상을 나눠 지원하는 것임
- 먼저, 티어(Tier)1로 분류된 업체나 단체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팀이라 이름 붙이고, 청정에너지 실증사무국(OECD)이 관리함. 티어1의 업체나 단체는 초기에 SMR을 배치하고, 3세대 플러스의 다중 원자로 SMR을 촉진하는 데 전념함. 퍼스트 무버팀에는 최대 2개의 팀에 최대 8억달러(약 1조1048억원)를 지원할 계획임
- 티어(tier)2로 분류된 그룹은 패스트 팔로워 배치(Fast Follower Deployment) 그룹으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국(NE)에서 관리를 맡음. 티어2 그룹은 설계, 라이선스, 공급업체 개발 및 현장 준비 등에서 티어1 그룹과의 격차를 해결하고 추가 SMR 배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억달러(약 1381억원)를 지원함
- 9억달러(약 1조2429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은 거의 50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가 민간에 원전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 이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3세대 플러스의 SMR 기술을 미국에 초기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 미국 에너지부(DOE)는 미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약 700-900GW의 추가 청정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원자력은 인공지능과 기타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증된 옵션이라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미국 연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욕구와도 맞아떨어짐. 미 정부는 에너지 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와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은 미국에서 가장 큰 무탄소 전력 공급원으로, 약 6만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수십만 명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이외에도 미국 연방정부는 SMR이 작은 설치 공간과 모듈식 설계로 인해 외딴 지역부터 도시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에 배포할 수 있으며, 공장 건설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DOE)는 올해 늦여름이나 가을에 지원 대상의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임

(임팩트는 2024.6.20) 홍명표 기자